

어린이 보약

김영섭/백운당한의원 원장

어느 부모든지 자식의 건강을 생각치 않는 경우는 없지만 특히 한국의 부모는 자식에 대한 애착심이 높은 것 같다. 그리고 강약을 막론하고 보약을 먹이지 않는 부모 또한 없다.

심지어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젖꼭지를 물리기 전에 녹용을 1돈 가량 달여 먹이고 또 감초를 달인 물을 깨끗한 가제에 적셔 입안을 씻어 주기도 한다. 이는 약초를 처음 발견한 신농씨가 독초 때문에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해독을 위해 감초를 달여서 먹었다는 데서 유래된다.

이렇듯 감초는 모든 독초의 독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처음 태어난 아기에게 이것을 음미케 함으로써 체내 불순물의 부작용을 없애고 면역성을 길러주기도 한다.

다음은 귀용탕을 먹인다. 귀용탕은 보기하고 비위 기능을 보강하는 백출과 보혈하는 당귀를 부수약으로 하여 녹용을 주약으로 구성된 것이다. 그와 적당한 양을 나이에 맞춰 녹용제제를 복용시키면 내일의 체력 보강을 꾀하는 최초의 강장 양생 보약이 된다. 이는 어린이를 위한 제일 효과적이고 그 효험이 잘 알려진 보약이다. 혹자는 머리가 나빠지고 비대해진다고 회피하는 부모도 있으나 전혀 근거가 없다. 옛날에는 주로 봄 가을을 택했지만 사실은 여름도 무방하고 알맞게 먹이면 매우 이상적이다. 주로 성장과 호흡기 질환에는 현

저하게 나타나고 전문가 권유보다는 구전에 따라 엄마들의 선택이 대부분이다. 먹이는 양은 체질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경우는 나이의 반 수치로 먹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만나이에 따라 복용하면 좋은데 그것도 매년 계속하는 것이 더욱 좋다.

그리고 흔히 편식벽이 심하고 살이 오르지 않으며 얼굴색이 좋지 않은 어린이에게는 비아탕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처방은 구충 효과도 지니고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약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수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비위, 배, 발 등을 따스하게 하고, 둘째, 머리와 가슴 부위는 서늘하게 하며, 셋째, 괴물은 보이지 말아야 한다. 넷째, 울음이 그치기 전에 젖을 먹이지 말고, 다섯째, 함부로 경분이나 주사 영사를 먹이지 말아야 한다.

13세의 6학년인 H군은 원래 약한 체질이라 매년 보약을 제때 먹었으나 여전히 갸마르고 성장도 처지며 얼굴색은 누렇게 뜬 채 피지를 못한다는 것이다. 살펴보니 긴장성 신경에 비위가 극도로 약해 보약을 위주로 하지 않고 치료제에 녹용을 섞어 1년에 3회로 적당량을 쓰자 얼굴색이 좋아지고 식사량이 늘면서 체중이 늘고 몰라보게 달라졌다.*

「꿈을 주는 남자, 꿈을 꾸는 여자」에서 발췌 (도서출판 무한)